

#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16기 입학식 개최... 전문 경영인 등 47명 입학

- 2010년 출범 이후 16년째.. 기술경영인문 융합 교육으로 시 대전환 시대 통합형 리더 육성
- 15기 동문회장 현대콘베어(주) 장한상 대표이사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가 3월 3일(화) 오룡관에서 제16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3월 3일(화) 오룡관에서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1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에는 임기철 총장과 정용화 대외부총장(GTMBA 원장), 김원만 지스트발전재단 이사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제16기 입학생 47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5기 동문회장인 현대콘베어(주) 장한상 대표이사의 발전기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장 회장이 기탁한 1,000만 원은 지역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1993년 현대콘베어(주)의 전신인 현대상사를 설립한 이후 국내외에 고품질 컨베이어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며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비를 제작해 온 전문 경영인이다. 품질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 및 물류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한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GIST가 세계적 명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과,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을 담아 발전기금 기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GTMBA 동문들이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다면 GIST와 함께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16기 입학식에서 제15기 동문회장 현대콘베어(주) 장한상 대표이사의 발전기금 기탁식이 함께 열렸다.

임기철 총장은 환영사에서 “GTMBA는 기술과 경영은 물론 인문·예술적 통찰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신 산업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IST는 기술경영 전문가 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해 전문 경영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최고기술경영자과정을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 16년째를 맞은 GIST아카데미는 체계적인 CEO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과 지역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약 62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산업·경제·공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